

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

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
동남아대양주팀 연구위원
sikwak@kiep.go.kr

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
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
jwcheong@kiep.go.kr

김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
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
jegook@kiep.go.kr

신민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
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
mishin@kiep.go.kr

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외자기업 우대 축소, 중국 내 인건비 상승과 성장둔화 등의 요인 때문에 우리 기업이 동남아에 관심을 두면서 생산기지의 다변화를 시도함.
 -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생산기지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차이나 리스크(China Risk)를 회피하는 방안으로 동남아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.
- 이러한 시점에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심이 확대되고 있지만, 경영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수요보다 매우 희소해 동남아 진출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 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경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함.
 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중소기업의 대동남아 투자가 급감했다가 최근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지만, 위기상황이 다시 불거질 경우 동일한 현상이 반복될 수 있음.
 - 한국의 동남아 총투자액 가운데 중소기업의 투자액 비중은 2011년 13.1%(6.4억 달러)로 줄었다가 2016년 26.5%(13.2억 달러)로 증가함.
- 우리 중소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 목적이 바뀌었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진출전략을 재구상할 때 필요한 자료가 현재 투자한 기업의 경영실태에 대한 정보임.
-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가 우리 진출 중소·중견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이 필요함.
 - 통상환경 변화가 현지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그 원인을 식별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.
- 최근 다시 회복 중인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원인을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실태를 통해 분석하고자 함.
 - 우리 다국적 대기업의 진출에 따라 동반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은 경제여건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노출되면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.
 -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과성이 높은 해외진출기업, 특히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.

2. 조사 및 분석 결과

1)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여건 변화와 진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

- 동남아 지역의 경제여건 변화를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이에 따른 낮은 원자재 가격, 메가FTA 확산추세 변화, 그리고 최근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나누고, 이러한 변화가 한국 진출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.
 -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보수적 인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방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, 높은 개방도는 진출 중소기업을 치열한 경쟁에 노출시키는 부정적인 효과(exposure risk)를 가져올 수 있음.
 - 인도네시아는 자국산 부품 충족조건이나 수출세 납부조건 제시 등 대외환경 변화보다는 현지 정책변화가 우리 진출기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됨.
- 동남아 국가가 투명성 개선을 위해 자구노력을 최근 강조하고 있으므로,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세무 및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.
 - 우리 중소기업은 노무 및 세무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동남아 지역의 임금상승과 인력난은 한층 가속될 전망이다.

2)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및 변화 분석

① 일본기업의 동남아 투자배경

- 1970년대 초부터 빠르게 진행된 일본의 동남아 투자는 2010년대 들어 일본 경제구조가 첨단산업과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고 내수경기가 위축되면서 다시 급증하고 있음.
 - 동남아 지역의 변화, 즉 ASEAN 경제공동체(AEC) 출범으로 인한 통합의 진전 및 심화, 국제경쟁력 강화, 역내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의 성과에 기초한 측면도 있음.
- 일본은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보유하지 못한 대신에,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,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진출기업의 대응을 파악하고 있음.
 -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태국에 일본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고, 인도네시아, 베트남, 말레이시아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.
 - 일본의 동남아 투자는 상대적으로 비제조업 비중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는데, 특히 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.

② 일본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 현황

- 일본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는 2000년대 들어 비중이 확대되었고, 그중 제조업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 중임.
 - 일본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확대의 원인은 저출산·고령화와 국내시장 축소 같은 구조적 요인과 FTA 확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.
- 시기별로 보면, 1990년대 엔고 진전, 국내경기의 침체, 대기업의 현지 조달률 향상에 따라 국내거래가 축소되면서 자체적으로 해외로 많이 이전하였고, 2000년대 이후에는 일본 대기업과 외국 다국적기업과의 현지거래를 위해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음.
 -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결정 시 고려사항의 시기별 변화를 보면 양질의 저임노동력 확보는 시기별로 감소하고 있고, 현지의 제품수요 왕성 또는 향후 수요확대 전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.
- 한편 납입처를 포함한 다른 일본기업의 활발한 진출로 동남아 지역에 일본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일본기업간 거래관계가 확대하는 등 현지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중소기업도 동남아 지역에 진출하였음.

③ 일본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

-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일본의 일자리와 수출을 구축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해외에서 창출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정부는 해외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음.
 - 해외진출을 단계별로 나누어 중소기업의 해외전개를 지원하고 있음.
 -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정보수집과 상담, 조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,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인재육성 및 확보, 국내에서 해외판로 개척 지원, 해외에서의 직접판로 확대 지원 등을 JETRO와 중소기업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음.
 - 해외 전개단계에서는 자금조달, 리스크 회피, 지적재산권, 진출 후 지원 등을 하고 있음.
 - 일본은 풍부한 ODA 자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음.

④ 일본의 동남아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일본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

- 중국 리스크의 확대에 대해서 일본 중소기업은 수익률 감소를 걱정하고 있었지만, 응답기업의 32.8%는 별로 영향이 없다고 답했음.
 - 통상협상의 경우 해외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응답이 55% 이상이었음.
 - 전통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위기가 오면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재편을 목격하였는데 글로벌

- 금융위기 직후 동남아에서 철수가 급증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추세가 감소 중임.
- 차이나 플러스원(China plus One) 전략이나 타이 플러스원(Thai plus One) 전략에 따라 중국에서 동남아로 해외거점을 재편하거나 태국에서 동남아 이웃국가, 특히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일본기업이 늘고 있음.
- 동남아에서 일본으로의 리쇼어링(reshoring) 비중은 아직 낮지만, 동남아 역내통합 움직임에 따라 산업별로 역내 제품 공급망(supply chain)을 구축하거나 사업거점을 재편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.

● 일본정부는 해외 자회사 경영의 과제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(국내본사)에 대한 전문가 진단 및 시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음.

- 해당 과제에 소요되는 경비의 2/3를 정부기관(중소기구)이 160만 엔 한도로 부담하고 있음.
- 대내외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해외사업을 재편하려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사업 재편자금을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용자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중임.

3) 설문조사에 나타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

① 설문조사에 나타난 경영실태

- 법인 설립 이전단계에서 과거처럼 열악한 인프라에 대한 불만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지만, 복잡한 행정체계와 문화적 차이, 허가기관과 투자 파트너의 태도변화 등은 여전히 애로사항으로 남아 있음.
 - 매출액이 큰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현지의 복잡한 행정절차로부터 자유로웠는데, 이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이해됨.
-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자금조달을 한국본사(모기업)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.
 - 현지에서 정책금융 용자를 활용한다는 기업이 전체 응답기업의 8%, 현지 금융기관 활용이 응답기업의 25%에 지나지 않음.
 - 자금조달에 따른 어려움도 국가별로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국가별로 차별화된 자금조달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 - 중소기업이 동남아에 진출할 때 모기업의 보증이 현지 자금조달에 필수적이라는 점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에 모기업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.
- 현지시장 31.8%, 한국 46.3%, 제3국 시장 21.9%로 나타나 현지 중소기업이 한국에서 많은 원부자재를 수입해 가는 것으로 파악됨.

- 생산설비에 있어서도 중고설비와 신설비를 포함할 경우 한국산이 전체 설비의 54%라고 답했음.
- 한국수출입은행이 2016년 발간한 「2015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」에서 우리나라 총수출액 5,267억 달러 가운데 2,158억 달러가 현지법인이 한국에서 수입한 금액임을 밝히고 있는 점과 궤를 같이함.
-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을 구축한다고 보기는 어렵고, 대신에 우리 수출을 확대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● 투자결정 이후 본사의 경영지표, 매출액, 생산규모, 종업원 수, 연구개발인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.

- 산업별로 영향받는 정도가 달랐는데 플라스틱/비금속 업체의 경우 매출액, 생산규모, 종업원 수, 연구개발인력 모두 감소함. 동 분야는 환경 이슈와 관련해 한국에서 대부분 철수하고 동남아 현지로 이전했기 때문으로 이해됨.

● 진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지화가 강조되면서 현지법인의 기능에 대한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.

- 납품, 고용, 판매가격 등 생산과 직결된 대부분의 결정은 현지에서 이루어지지만, 신규시장 개척, 신제품 개발, 생산설비 확대, 금융조달 등 투자 결정은 여전히 본사의 권한으로 남아 있었음. 향후 적절한 권한 이양의 범위 설정에 관한 컨설팅 지원이 요구됨.

●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상품수출국으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하기가 어려우므로 우리 기업의 진출과 지분확보를 자본수지 창출방안으로 활용해야 함.

②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한 경영성과 분석

●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수익성과 유의한 관계를 가졌지만, 성장성과는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음.

● 한국 본사(모기업)의 경영성과 지표와 현지법인의 경영성과 지표 간에 유의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활동이 한국기업의 경영활동을 구축한다고 할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.

● 생산기능만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보다는 생산, 영업, 연구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더 높았음.

-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한 임금상승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.
-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인지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.

3. 정책 제언

1) 동남아 기진출 중소기업의 가치

- 기진출 중소기업은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보다 현지에 대해 더욱 풍부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.
 - 동남아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국내기업이나 현지 창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기진출 중소기업을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위험을 줄일 수 있음.
 - 민간기업이 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보나 잉여자산을 쉽게 공유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소기업간 협업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함.
-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조달국 비중을 보면 현지시장 31.8%, 한국 46.3%, 제3국 시장 21.9%였고, 생산설비 54%가 한국산으로 조사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이 우리 수출을 구축한다고 말하기 어려움.

2)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신방향과 정책적 시사점

- 우리나라의 동남아를 포함한 해외 진출기업 지원정책은 기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.
 - 동남아 진출 중소·중견기업이 가장 희망하는 지원은 금융지원으로 환위험 보험, 이행성 보증 및 채무보증 지원 등 리스크 회피를 위한 간접적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지만, 아직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요를 직접 만족시켜주는 제도는 부재한 상황임.
 - 일본은 해외 현지법인의 사업개시 또는 확대자금을 용자해주는 해외전개지원(オーバーシーズ 21, Overseas21)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나, 한국은 해외투자자금 대출이나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 등 직접적인 해외진출 중소·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책을 찾을 수 없음.
- 한국수출입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'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'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, 이 프로그램은 현지진출 대기업과 협력하여 대기업과 동반 진출한 협력 중소·중견 기업에

만 필요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한계가 있음.

-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,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.

● 일본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방안 마련을 위해 전 부처가 협력하여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, 우리나라는 KOTRA, 중소기업진흥공단, 중소기업청, 한국수출입은행, 산업통상자원부 등 지원 프로그램 수행기관이 분절되어 있고, 지원책이 서로 조율되지 못해 중복되거나 혼재되어 있음.

- 다행히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이 함께 하는 ‘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통합공고’를 통해 수행기관의 혼재 속에도 우리 중소기업이 적절한 지원책을 한눈에 찾을 수 있게 됨.

- 수요자가 더욱 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점은 높이 살 만하지만, 여전히 사업의 주관기관이 분절되어 있어 유사한 사업간 시너지 창출 기회를 저하하고 있으므로, 진출기업 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● 현재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직접 수출지원 및 진출 전 단계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, 향후 신방향으로 기진출 중소기업 대상 사업재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3)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방안

①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

● 일본이 국제 통상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현지의 반응과 대응을 확인하듯이 우리나라도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현황 조사를 선행해야 함.

- 우리나라는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정보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총괄하여 수집하고 수집된 기업별 자료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있다 보니 이슈별 중소기업이 겪는 문제점과 대응정도를 시의성 있게 파악하기 어려움,

- 우리 중소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다 보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.

●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현지조사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형성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.

- 설문은 기업의 경영실태뿐만 아니라 기업의 향후 전망, 애로사항,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야 하고, 조사결과를 근거로 우리 중소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면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개선될 것임.

-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접근성도 떨어지지만 정보처리능력도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중소기업의 역량에 부합하는 처리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,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함.
- 이미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기업을 우리나라 기업으로 볼 것이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, 기진출 기업이 결국 한국 수출의 창구이자 이전소득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두어야 함.
 - 이미 진출한 중소기업은 신규로 진출하려는 기업에는 정보의 보고이므로 한국에 모기업을 두고 있는 현지기업의 모기업 지원을 통해 현지 기진출 기업이 신규 진출기업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인체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임.
- ② 기진출 한국 중소기업 현황 파악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
 - 국가별로 우리 중소기업이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이 다르므로 국가별 특성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출지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 및 분석할 필요가 있음.
 - 동남아 현지 한국 중소기업이 호소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현지 임금상승, 노동력의 질, 모호한 각종 규정, 인프라 부족, 노무관리 등이었으나, 국가별로 느끼는 애로사항과 어려움의 정도는 차이가 있었음.
 - 필리핀 소재 기업은 노동력의 질과 인프라 부족을,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은 현지 임금상승과 모호한 각종 규정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여기고 있었음.
 -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은 임금상승과 인프라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음.
 - 우리 기업이 어렵게 느끼는 모호한 규정 적용에 관해 상세히 조사해 현지국 정부와 통상협상 의제로 다루어야 함.
 - 복잡한 CR Mark 인증 절차와 낙후된 현지 시스템으로 현지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자, 양국은 2015년부터 한·베트남 FTA 경제협력 약정분야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의 하나로 한·베트남 강제인증(CR mark) 획득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 - 설문에서 공통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은 임금상승 속도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.
 - 전문직·기술직 등 중간관리자급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으므로, 진출국 정부의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해 노동공급을 늘린다면 어느 정도 임금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임.
 -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동남아 투자환경 가운데 향후 3년간 가장 크게 악화될 부문으로 노무관리와 세무관리를 꼽은 반면, 가장 개선될 부문으로 물류·유통·통신 인프라를 꼽음.
 - 현지에 관련 전문자격증 제도가 부재하다면 양자협상을 통해 전문자격증 제도 형성을 지원할

수 있고, ODA 자금 또는 기업의 CSR(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)과 CSV(Creating Shared Value)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.

③ 동남아 생산 네트워크 재편에 따른 사업 재편 지원

● 동남아는 다양한 10개국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각국의 산업화 정도에 차이가 있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과 메가 FTA 추진은 각국의 산업 및 통상정책 변화와 함께 결국 동남아 지역의 생산 네트워크를 재편할 것임.

- 동남아 지역에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한 일본은 이미 통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해 진출기업의 사업을 재편한 경험이 있음.
- 중국과 태국의 경제여건이 변화하자 일본정부는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차이나 플러스원 전략과 타이 플러스원 전략의 활용을 권장했음.

● 진출국 현지의 상황변화에 따라 해외사업 재편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.

-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해 실제로 중소기업(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)가 해외사업재편 전략추진지원사업(海外事業再編戰略推進支援事業)을 직접 지원하고 있음.
- 우리나라도 사업재편지원제도를 KOTRA가 산업부와 함께 수행하고 있지만 한국으로의 U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.

● 우리나라는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에 비해 아직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완비하지 못했으므로, 이를 정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.

- ASEAN 경제공동체(AEC)의 출범은 이미 동남아 역내에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완비한 일본기업에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줄 전망이므로, 이미 구축된 지역생산 네트워크의 재편을 통해 효율성을 확대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.
- 2016년 한국의 대동남아 투자액 가운데 44.3%가 베트남 투자로, 한 곳에 집중하였다는 점은 효율성 측면에서 진출 초기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, AEC 출범 이후 동남아 지역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여겨야 하는 상황에서는 동남아 지역 전역을 경영해야 함.

④ 기진출 중소기업과 신규 진출 중소기업 간 연계

● 기진출 기업의 잉여 생산 라인이나 공간을 신규 진출 중소기업이 임차하여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함.

- 일본의 라인가리(Line Gari)나 노키사키(Nokisaki)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사례로 제시

- 기진출 기업과 신규로 진출하려는 기업 간에 협력하도록 하려면 한국 내 모기업에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유인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.
- 기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,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과 현지 진출기업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인제도가 마련된다면 스타트업 기업이 초기에 자리잡는 데 유용할 것임.
- 동남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미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적 로드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함.
 - 베트남을 거점으로 하는 육상 생산 네트워크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하는 해양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계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.
- ⑤ 지역전문가 양성
 - 설문조사 결과 최근에 동남아로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일수록 내수판매 시 의사소통 및 문화적 차이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음을 확인함.
 -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고,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전문가를 양성해야 함. **KIEP**